

벧속 편히 사는 길?

‘간택’만 하지 않으면...

무비 스님 ‘신심명’ 강의, 중도로 지혜롭게 사는 길 제시

간택(揀擇)하는 마음, 증애(憎愛)하는 마음, 순역(順逆)하는 마음, 위순(違順)하는 마음, 취사(取捨)하는 마음...

가리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따르고 거스르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 쉬운 일일까? 대부분의 사람에게서는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서는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 우리가 사는 그 자체가 분별과 좋고 싫음과 따르고 거스르는 것의 반복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평온’을 원한다. 그 무엇으로부터 구속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벧속 편하게’ 살고 싶어 한다.

얼마나 모순된 일인가? 들끓는 욕망과 성취가 삶의 가치라고 여기는 게 현대인의 자화상이다.

중국 선종의 세 번째 조사이인 승찬(僧璨) 스님은 일찍이 나병(한센병) 환자였다. 말짱한 사람도 갖고 싶고 이루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것이 많은 인간세상에서 그토록 참혹한 병을 앓는 사람이 갖는 고통은 어떠했을까? 이루고자 하는 욕망보다 이루고자 하는 욕망조차 품을 수 없는 사람의 참담함...

“저는 대풍질(한센병)을 앓고 있습니다. 과거에 죄가 많아서 그런가 봅니다. 어떻게 참회하면 병이 낫겠습니까? 스님께서 참회시켜 주십시오.”

2조 혜가 스님을 찾아가 온 마음으로 바친 한마디.

“그대가 죄가 많아서 그런 병을 앓고 있다고 하니, 그 죄를 가져와 나에게 보인다면 그 죄를 내가 참회시켜주겠다.”

2조 스님 역시 스승 달마에게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너라’라는 가르침으로 눈을 뜬 터가 아닌가? 승찬 스님은 2조 스님의 ‘죄를 가져오라’는 말 아래 ‘공’의 도리를 깨치게 된다.

그간의 세상을 향한 원망이나 자신을 향한 좌절도 붉은 녹두 녹아 내렸을 것이다. ‘죄를 가져오라’는 한마디에.

진리는 긴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짧은 한마디에 우주를 품는 진리가 들어 있다. 길면 그 뜻이 흘러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는데 방해가 되는 법이다. <신심명(信心銘)>은 짧다. 대풍질의 고통을 한 마디 ‘공’의 가르침으로 녹여버린 승찬 스님이 전하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다.

“지도무난(至道無難) 유휘간택(唯懃揀擇).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으며 오직 간택함을 싫어할 뿐이다.”

<신심명>은 짧은 시구로 된 가르침이지만 이미 초반의 이 두 구절에 뒤의 모든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다.

육망으로 고통받는 인간의 그림자를 이루는 것이 바로 ‘간택심’이다. 이 간택심만 버리면 도에 이를 수 있고 도에 계합된 삶을 살 수 있다. 간택심을 달리 표현 한 말이 뒤에 줄줄이 나오는 증애심 순역심 위순심 취사심 따위들이다.

승찬 스님의 <신심명>을 원전만큼이나 간결하게 풀어 준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의 강의. 그 강의록을 묶은 <신심명 강의>를 읽어보면 승찬 스님의 가르침과 무비 스님의 노파심이 절절히 그치지 않다.

무비 스님은 ‘중도’의 원리를 바르게 깨치는 것이 잘 사는 길 즉, ‘지도(至道)’의 길임을 누차 강조한다. 쌀을 얻기 위해 벼의 뿌리도 썰기도 겨도 다 필요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쌀이 필요하다고 하여 뿌리와 줄기 없는 벼를 구할 수 없고 겨 없이 쌀을 얻을 수 없음을 간파하라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과 사물을 그렇게 동등한 가치로 이해하는 것이 ‘간택심’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것. 육망의 뿌리를 끊어 버리는 지혜, 간택하지 않고 중도의 가치를 아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신심명>을 가슴에 새기라는 것이 무비 스님의 당부다.

<신심명>을 가슴에 새기면 어떻게 될까? 맨 마지막 구절이 답이다.

“언어도단(言語道斷) 비거래금(非去來今) 언어의 길이 끊어져서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무비 스님의 신심명강의 무비 스님 지음 조계종 출판사 9000원



사는게 힘들때 ‘종이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라

사는 것이 재미없을 때, 혹은 살기 힘들어 몸도 마음도 축 늘어질 때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용기? 희망? 솔? 친구? 사람에 따라 달리 답할 것이다.

안성 도피안사 주지 송암 스님이 ‘종이거울 보기 운동’을 시작하며 내세운 모토다. 다소 긴 표현이지만 뜻은 바로와 닿는다.

해를 주는 일화들을 모은 ‘거울’이다. 김재일 대표가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들을 ‘도반’이라 말한다.



종이거울 김재일 엮음 종이거울 | 8000원

임연태 기자

“한 번만 읽어도 사는 가치 느낀다”

재소자의 어머니가 흘리는 눈물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그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 세상에서 가장 잘 생긴 사람, 그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 아무리 열심히 찾아봐도 마음 밖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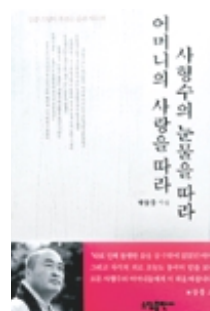
산티데비의 행복수업 산티데비 지음 김영로 옮김 불광 | 9800원

노모가 기거하는 방은 한 두 사람이 겨우 발을 뻗을 정도로 좁고 조라했다. 게다가 한 겨울인데도 온기가 전혀 없었다.

“어머니, 연탄 없으시면 제가 좀 사다드릴까요?” “아뇨 연탄은 많아요” “그런데 왜 안 때세요?” “내 자식이 차가운 감방에 있는데, 어미가 돼서 어떻게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겠어요?”

어느 사형수 어머니와 재소자 포교의 대부인 삼중 스님(자비사 주지)이 주고 받은 대화중 일부다.

이 책에는 삼중 스님이 40여년동안 만난 재소자와 사형수 어머니들이 흘린 통곡의 눈물들이 담겨져 있다. 정말 그 어머니들의 사연은 애절하다.



어머니의 사랑을 따라, 사형수의 눈물을 따라 박심중 지음 소담 | 9000원

김주의 베스트 불서10

Table with 4 columns: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Lists 10 books by Kim Jui.

‘천태지관’의 이해 선불교 이해의 열쇠

중국선을 이해하는 데는 반드시 지의 스님(538-597)의 ‘천태지관’을 이해해야 한다. ‘천태지관’은 교관일치를 통해 수행의 성격과 거기에 정비된 행(行)의 체계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태지관의 연구 신다세키구치(關口眞大) 지음 해명 옮김 민족사 | 2만5000원

‘천태지관’이 중국 선사상의 큰 맥을 유지하는 근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천태지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져 많은 책들이 출간돼 있다.

그중 동경대 강사인 신다세키구치가 쓴 <천태지관의 연구>를 동국대 강사 해명 스님이 쉽게 번역해 최근 펴냈다. 제목 역시 <천태지관의 연구>다.

이 책은 지의스님의 실천론인 천태지관의 구성과 특색에서부터 천태지관의 성립과 경위, 전개와 영향에 대해 상세하게 밝혀 놓아 전공자 이외에도 선 수행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특히 천태지관의 성립과 경위에는 삼종지관과 삼종교상, 좌선과 25방편, 선과 지관, 사중삼매와 10승관법, 사홍서원과 6주 등의 문례에 대해서 해설해 놓았다.

김주일 기자

Advertisement for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with contact information.

Large advertisement for 'National Literary and Art Festival 2007' featuring Nepalese music and dance performances.